

종전 무산에 증시 '출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다시 확산

코스피 0.86% ↓ 변동성지수 50.13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아 타격 클듯
경기침체·물가상승 가능성 재점화



ChatGPT로 생성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결렬에 변동성이 확대된 한국 경제 분위기' 관련 이미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나 장기 회복의 시작이나, 다시 확산한 중동 불안에 직면한 코스피를 보는 시각은 양쪽으로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향후 코스피의 움직임은 중동 협상 결렬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달렸다고 본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경우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란과 미국 양측이 완전히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양측의 무력 충돌이 확대될 경우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동 리스크 다시 부상

13일 코스피는 0.86% 하락한 5808.62에 마감했다.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50.13을 기록했다. 시장 출렁임이 심하고 전망이 어두울 때 지수가 오르는데, 50 이상이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환율도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8원 뚝 달러당 1489.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확산한 탓이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 30분께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을 미 해군력을 동원해 봉쇄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하면서 휴전 합의도 닷새 만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로 인해 국제 유가는 치솟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물가 상승) 공포가 재점화한 모양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13일 오후 2시 30분 기준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7.35% 오른 배럴당 102.20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6월물은 8.48% 오른 배럴당 104.76달러를 나타

내고 있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주 2주 휴전 합의 소식에 95달러 밑으로 진정됐지만, 다시 100달러 선을 돌파한 모습이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이 7월까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점진 회복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급부족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20달러가량 추가 상승할 여지도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폐쇄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에너지 생산이 제한적인 한국과 일본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게 투자은행(IB) 나틱시스(Natixis)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경제전망 때 제시한 2.0%의 반토막 수준이다. 국내외 기관 중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낮춰 잡은 곳은 나틱시스가 처음이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0.4%포인트 하향했다. 나틱시스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은행이 도울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수입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불확실성 대비해야

이날 미국과 이란 양측의 협상 결렬로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심해졌다. 시장 전망도 엇갈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시장은 인플레이션 이벤트 전후로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며, 그 변동성의 진폭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미-이란 협상 결과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이라며 "이번 1차 협상 결렬 소식으로 주식시장은 관련 불안심리가 우위에 있겠지만, 매도 대응을 선 순위로 가져가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오는 22일 예정된 휴전 기간 동안 협상 진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예상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협상은 이란의 핵 포기 확약과 해협 즉각 개방 거부로 노딜 종료했다"며 "밴스 미 부통령은 최종 제안을 던지고 귀국했으며 2주 휴전 기간 내 합의를 위한 휴전 연장 여부가 향후 관건"이라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해커 표적 된 금융권... 금감원 '총력 대응'

지난달 위협정보 건수 약 2.5배 증가
디지털 리스크 분석·감독팀 확대 개편

중동 전쟁 이후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노린 사이버 공격 등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전파한 위협정보 건수가 한 달 새 배 넘게 증가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전 금융사에 전파한 보안 위협 건수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월 대비 2.5배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보안상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올해 초 디지털 보안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디지털 리스크 분석팀과 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전쟁발발 직전인 2월 말 FIRST를 본격 가동해 소프트웨어 취약점, 사이버 공격 동향, 전자금융 부정 결제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전 금융사에 실시간 전파하고 있다.

위협정보 전파 증가는 이란 등 국가 배후의 해킹 세력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 노출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공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국내 금융권도 사실상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사 대상 해킹 첩보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국내 한 카드사를 겨냥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

부) 공격이 포착돼, 금감원은 FIRST로 500여개 금융사에 실시간 알람을 전파해 선제 대응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란은 사이버 공격 능력이 강한 국가"라며 "글로벌 SW 취약점 노출 시 우리 금융권도 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사이버 위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민간 분야(금융·유통 등) 침해사고 신고는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 2025년 2383건으로 2년 만에 86.6% 늘어났다.

임 교수는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악성코드 생성이 자동화되면서 공격이 더욱 정교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ChatGPT로 생성한 사이버 공격 관련 이미지.

금감원은 최근 시장 영향도와 사고 빈도 등을 종합해 디지털 리스크 고위험사를 선정하고, 보안 분석 주기도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위험사로 분류될 경우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사태와 FIRST 도입이 맞물리면서 적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례 공유와 상시 감시를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지난달 외국인 채권 보유잔고 '최대폭 감소'

중동발 리스크 영향

3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외국인의 채권 보유잔고가 월단위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 3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서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인 국내 채권보유 잔고는 340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말(350조6000억원)대비 10조2000억원 감소했다.

협회는 "월 단위 보유잔고 감소 규모

는 기존 최대인 6조5000억원(2023년1월)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폭"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채 9조6000억원, 통안증권 2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타채권 2조4000억원을 순매도하며 총 7조4000억원을 순매수했다. 3월 순매수 규모는 전월 대비 4조7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전쟁 양상이 격화된 월 중반부터 달러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통화스왑(CRS)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외국인의

재정거래 유인이 크게 축소됐고, 은행채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3월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달 국내 국고채 금리에 대해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약세로 마감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며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강화했다"고 짚었다.

지난달 31일 외국인 매수금액은 4조5000억원으로 최근 1년 월말 일평균매수금액(1조5000억원)대비 3배 수준에 달한다.

/허정윤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에 이인형 선임

자산 가격 결정 등 활발한 연구 수행

자본시장연구원 이사회는 이인형 선임연구위원(사진)을 신임 부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바로 시작된다.

이인형 부원장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했다. 이후 LG경제연구원과 수원대학교를 거쳐 자본시장연구원에 재직하며 동향분석실장, 연구조정실장, 자본시장실장



을 지냈다.

더불어 이 신임 부원장은 자산 가격 결정, 지속가능성 가치 평가 및 공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기재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하은 기자